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지 군산 선정

군산 서수양돈단지 내 양돈농가 12호 ·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에 35억원 사업비 투입

전북도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0년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군산시(서수양돈단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공모한 결과 전국 4개 시·도가 응모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면→현장→발표)평가를 통하여 최종 대상지역이 선정됐다.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의 개별 농가 단위 지원에 비해 축사 밀집지역을 하나의 광역단위(시군 또는 축산단지)로 묶어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으로 악취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양돈농가 12호와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가 참여한다.

사업대상 축산농가는 서수양돈단지 내 양돈농가 12호와 공동자원화시설

(익산군산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1개소이며 이는 군산시 돼지 사육농가의 57%에 해당하고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수양돈단지에는 축산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설 및 폐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도부터 도입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민원이 줄어들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이 향상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8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됐으며, 그중 전북도는 익산시와 고창군이 작년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완료 후 1년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농장주의 악취저감 의식개

선과 암모니아 수치의 1/4수준 감소로 악취 민원이 줄어들고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폐사율이 감소했으며 출하일수가 감소되어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이번 공모사업으로 냄새민원이 상존했던 군산지역에 축사환경이 개선돼 악취민원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악취저정 ICT 기계장비'를 부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대상농가 12호와 공동자원화시설에 '악취저정 ICT 기계장비'가 부착되어 악취데이터(암모니아 가스, 온·습도)를 측정하게 된다.

측정된 데이터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축산악취관제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되며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도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진다.

또한, 악취저정 ICT 기계·장비를 통해 측정되는 데이터를 관리하여 시간대별 악취 발생특성 분석, 사업 전후 비교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축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공유경제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확정

전북도, 3대 정책방향 설정 · 8대 추진 전략 · 21개 사업 발굴

전북도는 공유경제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전략과 사업 발굴에 나섰다.

도는 제1차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정무부지사)를 열고,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으로 ▲공공부문 기반 구축 ▲민간부문 공유활동 촉진 ▲공유경제 추진체계 완비 등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8대 추진 전략과 21개 사업을 담았다.

8대 추진 전략은 ▲공공기관 자원공유 활성화 ▲지역특화 및 사회혁신 공유경제 창의화 ▲생활속 공유기회 확산 ▲공유경제 비즈니스 촉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공유경제 통합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전담조직 운영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등이 다.

도는 3대 정책방향에 따라 21개 세부추진사업을 발굴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유 가능한 자원을 우선 공유해 선도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며, 생활속 공유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촉진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유경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담당하기 위해 지원조직과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공유와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우리 도에 적합한 공유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3월 4일까지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북도는 오는 3월 4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수질보전활동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 수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등의 수질보전활동을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4일까지 전북도청 새만금수질개선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 대구의료원 의료진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전북도, 중국 유학생 관리 지원

중국 유학생의 입국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학,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학생 집중 관리에 나서고 중국 유학생이 있는 대학에 7억6천여만 원을 긴급 투입해 유학생 관리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25일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해 대학, 시군, 시군보건소, 소방서, 경찰서를 포함한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중국 유학생에 대한 철저한 격리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인천공방에서 학교까지 별도 버스로 수송하고 있으며, 입국예정자 전원 기숙사 입소를 원칙으로 조치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 폐쇄 여부 확인... 매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코로나19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도내 신천지 시설을 추가로 확인해 폐쇄하는 등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신천지 측이 발표한 도내 시설 63곳 외에 추가로 조사된 3곳을 포함해 66곳에 대한 폐쇄 여부를 확인했으며, 25일부터 매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파악된 신천지 종교시설 3곳

중 2곳은 전북도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했으며, 다른 한 곳은 신천지 측에서 추가 신고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132명으로 구성된 합동반으로 편성해 신천지 종교시설 66곳을 매일 방문해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민중종교와 신홍종교 등에 대해서도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 민중종교(천도교, 증산도 등) 25개소, 신홍종교(통일교

여호와증인, 하나님교회 등) 83개소 등 종교시설 108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해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파악한 종교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종교계에 대중 집회 자제를 권고하고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제4기 자치분권추진협의회 구성

전북도 자치분권 추진 위한 시행계획(안) 심의 · 확정

전북도는 25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기존 의회, 학계, 언론, 경제, 시민단체로 구성했던 자치분권추진협의회를 전격 개편하여, 자치제도, 재정분권, 자치분권 등 정부정책 대응을 위해 전문분야별 도내 전문가로 영입한 제4기 자치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 과제별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도는 분권과제별 소관 실무별 발빠른 정부정책 대응전략을 담자 작성된 '2020 전라북도 자치분권추진실행계획'이 이날 협의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우리도에 유익한 재정불균형 해소와 중앙-도-시군간 협력강화 장치로의 작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문가로 협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발제주제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 관련 우리도 대응방안' 제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 자치분권추진협의회 참석위원과 실무별 소관 추진과제 담당자들의 자치분권 이해도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중심의 획일적인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수 대한민국의자치분권박람회(2017.10.26)에

서 실질적 주권자인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인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선언, 재정분권추진방안을 발표(2018.10.31)하여, 1단계 재정분권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재 확충이란 가시적 지방재정분권을 거뒀다.

최근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제정 2020.1.9, 시행 2021.1.1)이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자치분권실행계획' 확정(2019.2.22),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후속절차인 400개 이상사무 관련 인력·예산 행·재정지원제도 마련,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분권 핫이슈 추진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자치분권 6대전략 33개과제 실행을 담은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국회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고, 2단계 재정조정제도개편(안) 추진이, 지역간 세원불균형 조정과 재정적자 완화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되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4대 협의체 등 정치권과 타시도의 긴밀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성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환 영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각 평생교육원에서 들었던 주, 야간반으로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웃음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20학년도 1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군산, 부안, 서원
전북과학대학교	스피치 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정읍, 고창
원광보건대학교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익산, 완주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p>상담전화 (전제)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합니다.</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